

- 그러나 모스크바 통관은 여전히 어려워 현재는 핀란드에서 통관하여 헬싱키에서 Trucking하여 모스크바로 운송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. 또한 연해주에서 정식 통관 후 내륙 화물화 시켜 운송하는 방법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임. 장기적으로 볼 때 대 러시아 화물 운송은 이 방법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.

## □ 결 론

- 대 러시아 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러시아 물류체계에 대한 우리나라 업체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어 향후 이 면에서 우리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. 그러나 현재 대 러시아 수출 물량의 많은 부분이 종전과 같이 핀란드를 경유한 러시아로의 진입 방법을 택하고 있어 TSR보다 긴 운송기간의 소요와 비싼 운송비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면이 많이 있음.
- 그러나 현재 TSR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,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톡항이나 보스토치니항의 노후화된 시설, Cargo Tracing에 대한 문제, 완벽하지 못한 전산화 실태 및 연해주 세관에 대한 모스크바 중앙세관 당국의 엄격한 통제 등이 TSR에 대한 획기적인 이용확대를 막고 있는 요인임.
- 위와 같은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스크바 당국이 기존의 방법(핀란드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방법)을 고수하고 있어 갑작스럽게 TSR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대 러시아 물류체계는 연해주 통관을 전제로 한 TSR 화물 운송방법으로 보다 많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.

(문의처 : 블라디보스톡무역관 고지찬 [jichanko@hotmail.com](mailto:jichanko@hotmail.com))

## 중동,아프리카지역

### ■ 알제리 대선 결과와 우리기업의 진출확대 방안

- 지난 2004년 4월 8일 실시된 알제리 대통령선거는 아랍권 최초의 민주선거에 의한 다원 민주주의의 정치실험으로 아랍권 및 프랑스, 미국 등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비교적 순조롭게 치루어졌음.
- 부트플리카” 현대통령 및 “벤 플리스” 전총리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알제리 국내 및 해외거주 총 1,800만명의 유권자중 1,000만명이 참가해 60%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대선결과는 안정을 바라는 경제계 및 중산층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85%의 유효득표를 획득한 “부트플리카” 현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음.

- “부트플리카”대통령은 오는 2009년 초까지 지속될 집권 2기 기간 중 그간 추진해 온 국민화합정책(Civil Concorde)을 통한 지속적인 테러문제 해결과 경제시스템 개혁 등 알제리의 정치 및 사회 전부문의 개혁속도에 탄력을 주어 실질적인 외국자본유치를 통해 알제리 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음.
- 그간 알제리시장은 1990년대 이후 테러로 인한 정치불안으로 우리의 관심밖의 시장이었으나, 1990년대말 “부트플리카” 집권후 테러리스트 사면복권정책으로 안정국면을 보여 미국, 프랑스, 중국 등의 비즈니스맨들의 진출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.
- 알제리는 북부아프리카 지중해연안의 마그레브국 중 3,200만의 소비인구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시장이며,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인 관세인하로 EU와의 완전 무관세교역을 앞두고 있음. 또한 중동, 아프리카,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의 수출 및 투자진출 대상으로 중요한 시장임.
- 알제리 시장 진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기본정보를 입수하여 시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. 알제리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진행추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. 알제리는 대선 후 주요 항만, 도로, 공항, 병원, 댐, 담수화설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석유, 가스분야 광구개발 및 부대설비 건설 등을 위해 주요 국제입찰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상태였음. 200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형입찰이 있을 예정인데, 동 국제입찰내용은 관련 웹사이트 ([www.algeriatenders.com](http://www.algeriatenders.com))이나 ([bomop@anep.com.dz](mailto:bomop@anep.com.dz))에서 관련 입찰정보를 얻을 수 있음.
- 그간 알제리의 정치불안으로 진출이 제한되어 왔으나, 최근 대선결과에 따라 향후 알제리는 내부적으로는 정치,경제가 안정되고 개혁이 가속화 되어 WTO 가입을 앞두고 국제적 스탠더드로 변하고 있는 경제시스템과 외부적으로는 원유 및 가스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연간 150억불의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알제리경제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음.
- 2003년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“부트플리카” 대통령은 알제리의 사회경제적 발전 모델국가로 우리나라와 이슬람국인 말레이시아를 선정, 협력강화를 위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알제리는 우리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음.
- 알제리시장에서 휴대폰, 가전 등 IT 제품과 자동차등 우리나라 대기업형 제품이 현 재 인근 유럽산과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유로화강세로 수입선을 우리나라 등 아시아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음. 알제리 소비자들의 韓國産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도 호의적이라 중소기업형 제품의 진출 환경도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의 중소기업은 알제리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(문의처 : 알제무역관 최동호 [choidh32@naver.com](mailto:choidh32@naver.com))